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향후 전망과 과제

재원 마련...시민·기업 참여가 관건

광주시가 16번째로 시민프로축구단(가칭 광주FC) 창단을 선언한 가운데 프로축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시민과 기업이 얼마만큼 참여하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매년 30~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40억원 정도는 시민공모주나 기업 후원으로 마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기업의 참여가 '관건' = 그러나 대표적인 지역 대기업인 금호, 남양 등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등 후원 기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서 광주시는 '실질적인 시민구단'으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모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이 소유한 프로축구단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지역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불립했지만 광주시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인 2008년 도민구단으로 창단한 강원 FC의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가입 승인 전에 도민주(1주당 5천원) 공모로 60억7천만 원, 광고 후원금 32억원 등 모두 113억원의 창단 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대구 FC는 시민주 공모를 통해 160억원, 대전 시티즌 60억원, 인천 유나이티드 168억원, 경남 FC 180억원 등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주 공모를 통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 창단준비위원회 발족 = 광주FC가 내년 시즌부터 프로축구 제16구단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선수단 구성까지 모든 일정을 마쳐야 한다.

광주시는 이달 이달 중에 창단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법인 설립과 발기인 총회, 시민주 공모, 구단 사무국 및 선수단 구성, 창단 재원



5일 박광태(가운데) 광주시장이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정환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에게 '빛 광'자가 새겨진 도지기를 선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후원기업 참여 불확실...창단 자금 50억 시민 공모에 기대

지역 출신 우수선수 영입·신인 10명 우선 지명권 등 혜택

미련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축구단 창단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시민주 공모 등을 통해 기금을 다지고,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 사무국 및 선수단 구성, 창단 및 운영재원 마련 등을 마쳐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는 사무국의 경우 홍보와 마케팅, 운영 등 부문에서 14명 내외, 선수단은 37명 정도로 꾸릴 예정이다. 다른 시·도민구단들과 형평성을 맞췄으며,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협의 아래 선정할 방침이다. 강원FC의 경우 공모 절차를 거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최순호 감독을 영입했으며, 광주 FC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선수의 경우 감독이 확정된 뒤 선발에 들어가며, 프로축구연맹의 배

려로 신인 드래프트 때 10명을 우선 지명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15개 프로구단과 이적 협상을 벌여 확보하게 된다.

광주 급하고 출신의 미드필더 고창현(대전 시티즌)과 광양제철고 조선대를 졸업한 수비수 안태은(포항) 등이 영입 후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의 1명 등 총 4명의 영입을 선발할 수 있어 창단팀 이지만 상당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FC는 이어 프로연맹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 안에 창단식을 갖게 된다.

◇축구계 뜨거운 호응 = 광정환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광주 프로축구단 창단은 참으로 의미가 크고 광주시와 K-리그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애환심

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단으로 발전하고 한국 프로축구 K-리그에도 새 바람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체육계에서도 박 시장의 시민구단 창단 발표에 대해 뜨거운 환영의 뜻을 보였다. 특히 축구 관계자들은 순수 프로구단이 창단되면 중·고교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유소년팀 창단 등 지역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초등부 5팀, 중등부 3팀, 고등부 3팀, 대학부 5팀 등 16개 축구팀이 있다.

광주시축구협회 기영욱 회장은 "축구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날이다"면서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직접 참여해 진정한 광주 연고의 프로팀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현대 vs KT&G "코트 여왕 가리자"

프로배구 내일부터 챔피언전...화력·높이 비스, 접전 예고

코트의 여전사들이 마지막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과 KT&G가 7일부터 'NH농협 2009-2010 V리그' 우승 타이틀을 걸고 7전4선승제의 챔피언전 결정을 치른다.

7일(14시)과 8일(17시) 현대건설의 홈 수원에서 1,2차전을 벌이고 3~5차전은 11일(16시), 12일(17시), 14일(17시) KT&G 안방 대전에서 치러진다. 6,7차전은 17일(14시)과 18일(16시) 다시 수원으로 옮겨 펼쳐진다.

◇오랜 숙원을 풀자=KT&G는 프로 출범 원년인 2005년 우승한 이후 한 번도 챔피언에 오르지 못했다. 2005년 시즌은 실업에서 프로로 전환하던 시절이라 반쪽 시즌이었고 여자 팀들은 남자팀에 '더부살이'를 하던 때였다.

베테랑 최광희가 활약하던 KT&G

는 챔피언결정전에서 도로공사를 3승1패로 누르고 우승했다.

하지만 이후 KT&G는 2005-2006, 2006-2007, 2008-2009 플레이오프에서 도로공사, GS칼텍스, 흥국생명에게 6전 전패했다. 지독한 플레이오프 징크스에 시달려왔고 당연히 챔피언결정전은 꿈도 꾸지 못했다.

1977년 창단한 현대건설은 1970~80년대 미도파와 함께 여자배구를 지배해온 양강 팀이었다.

그러나 프로 출범 이후에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2006년 9월 한국배구연맹(KOVO)컵 양산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전부다. 2006-2007시즌에서는 흥국생명에 져 준우승했다. 다섯 시즌 동안 정규리그 순위는 3-4-3-5-4위였다. 정규리그 1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화력·높이 엇비슷=현대건설 케

니(31)와 KT&G 마렐라이네 몬타노(27)는 둘 다 콜롬비아 출신으로 기록면에서 화력은 비슷하다.

득점상(699점)을 받은 케니는 킥 오픈, 시간차, 이등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몬타노는 공격 성공률과 오픈 스파이크가 1위이다. 몬타노는 특히 플레이오프 세 경기에서 94점을 몰아 때리며 61.43%의 가공할 적중률을 자랑했다.

센터진은 새로운 블로킹 여왕 양효진(21·현대건설)과 베테랑 더블 타워 김세영(29), 장소연(36·이상 KT&G)의 싸움이다. 높이는 양효진, 김세영이 190cm로 비슷하다. 세트당 0.980개로 남자 선수 못지 않은 가로막기 실력을 과시한 양효진이 블로킹에서는 독보적이다. 특히 몬타노의 스파이크를 15개나 잡아냈다.

KT&G는 장소연, 김세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세터 김사나(29)의 속공 토스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 세터 한수지(21)는 큰 경기 경험이 적다. /연합뉴스

홍명보, 자선축구 수익금 3억1천만원 기부

홍명보장학재단의 홍명보(41) 이 사장이 자선축구대회 수익금을 포함해 총 3억1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에 기부한다.

홍명보장학재단은 5일 "홍명보 이 사장이 6일 오후 1시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한다"라며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자선 축구대회 수익금 3억1천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꿈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아껴주시 덕분에 올해는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돌아온 이세돌

4월랭킹도 1위

북극 후 14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세돌이 4월 랭킹에서도 1위를 지켰다.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4월 랭킹에서 이세돌 9단은 9637점을 얻어 9635점의 이창호 9단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세돌은 3월 한달 동안 비씨카드배와 춘란배, 한국물가정보배와 하이원리조트배 명인전등 국제·국내기전을 넘나들며 9전 전승으로 지난 달보다 37점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5개월만에 1위에 오른 이세돌은 이로써 2개월째 순위를 지켰다.

이창호도 바둑왕전과 국수전에서 우승했고 중국의 강자들을 연파하고 농심배 한국우승을 이끄는 등 맹활약하며 44점이 올랐다.

1위 이세돌과는 불과 2점 차로 2005년 8월에 처음 랭킹을 발표한 이후 1.2위간 최소점수차이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 최은숙 '전국 최강'

펜싱 여일반 에베 우승

광주서구청 최은숙이 여자 최고의 검객이 됐다.

최은숙은 5일 경기도 화성발안 바이오체육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에베 개인전 결승에서 장세민(충북도청)을 15-6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날 열린 8강전에서 표신희

(부산시청)를 꺾고 4강에 진출한 최은숙은 준결승에서 강호 이윤희(강원도청)를 15-14, 1점차로 힘겹게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광주서구청은 에베 남녀단체전에서 은 1, 동 1개를 획득했다. 광주서구청 남자팀은 결승에서 화성시청을 맞아 열전을 펼쳤으나 38-45로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으며, 여자팀은 준결승에서 부산시청에 40-45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서승원기자 swseo@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부동산 문명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현명부모의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현명부모의 묘지관리비용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남골당! 남골당은 현명부모의 묘지관리비용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남골당! 남골당은 현명부모의 묘지관리비용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남골당!
- 남골당은 현명부모의 묘지관리비용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남골당! 남골당은 현명부모의 묘지관리비용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남골당! 남골당은 현명부모의 묘지관리비용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남골당!

문의: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아이엘리시아

고급즉매뉴, 건강한 맛, 불려있는 서비스 (500석 침베)

- 총 12칸 (전주, 서울, 대전, 부산, 대구)
- 고급(전주) : 12칸 (전주, 서울, 대전, 부산, 대구)
- 중급(대전) : 12칸 (전주, 서울, 대전, 부산, 대구)

062)671-1199

명스퀘어 타미널 3층 COV 빌

